순교자 말 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_주기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_박관준

죽을 때를 당해서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요,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것은
참 생이 아니다_서기훈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_이창현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몸,
오직 예수뿐이오_현병찬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광영이겠습니다_백인숙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_문준경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_최봉석

우상이기 때문에 참배하지 않습니다_권현호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 예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_김수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할 때
내 전신을 주께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_신석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애자(愛子)가 되고 싶다_손양원

관람안내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의 고결한 가치에 준하여 숙연함이 있는 사색의 공간이 되도록 정숙해 주십시오.

· 관람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00 ~ 17:00
· 관 람 료 : 무료
· 휴 관 일 : 주일, 신정(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성탄절(12월 25일)

예약방법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홈페이지(martyr.or.kr) <관람안내> 메뉴의 <방문예약/신청>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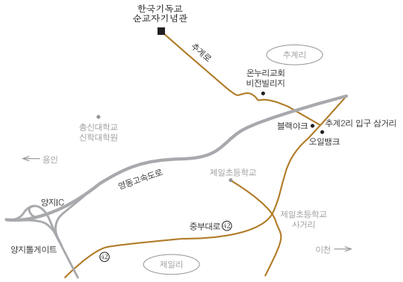
- <용인 시외버스 터미널> 또는 <양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3번, 97번, 103번 버스 이용. '추계리'에서 하차하여 길을 건너 40분 걸어오시면 됩니다.
- <용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포브스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970번 버스를 이용. '추계2리'에서 하차하여 30분 걸어오시면 됩니다.

자가용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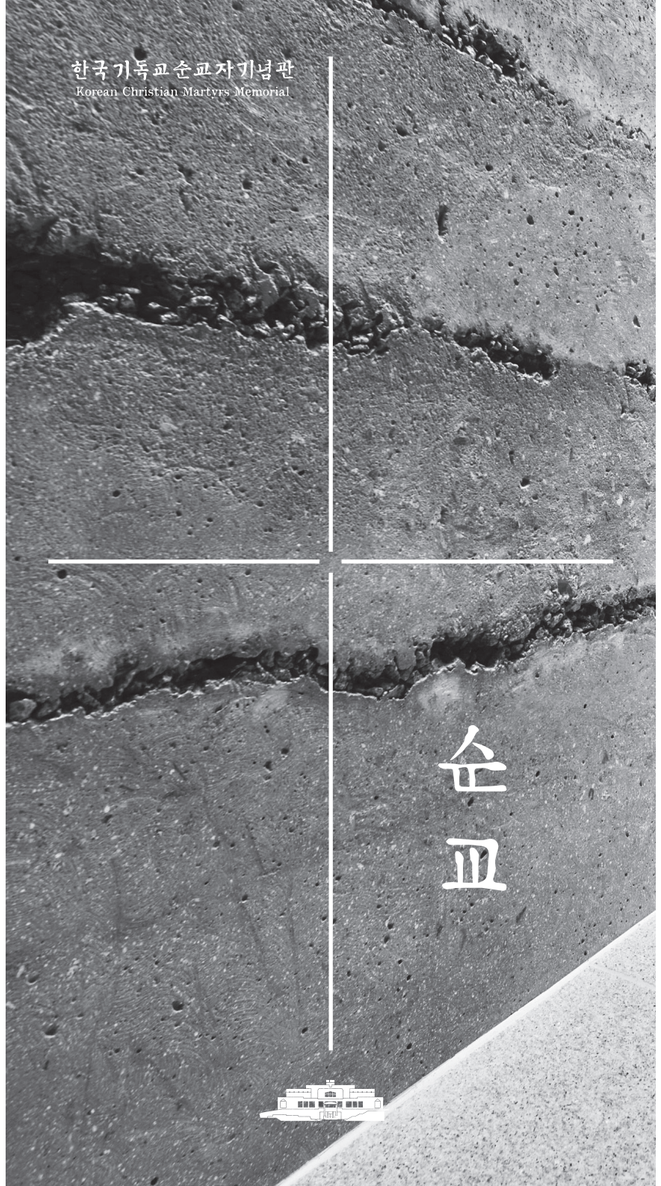
영동고속도로 양지IC로 나와, 양지IC사거리에서 좌회전(이천 방향) 후, 3㎞ 정도(아이린냉장/동일주유소까지) 직진하다가 추계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2㎞ 정도 길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차안내

'순교자기념공원' 표지석 앞쪽으로 주차
주차비 : 무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235 | 031-336-2825 | martyr.or.kr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소개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드린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리고 한국 기독교 200주년의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11월 18일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에 의해 개관되었습니다.

2005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은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을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성지로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서울 마포)과 함께 이곳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의 관리와 운영을 맡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쉼 없이 운영된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은 2019년 리모델링을 위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외관은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고 노후화된 내부 공간과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콘텐츠를 시대에 맞게 구성하고 영상기술을 접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였습니다. '배움과 만남 그리고 성찰'을 주제로 순교의 의미와 역사를 배우는 순교역사 전시실,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을 만나는 디지털 전시실과 함께 관람자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는 침묵과 사색의 공간인 채플을 조성하였습니다.

1전시실 – 순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1전시실은 '배움'을 주제로, '순교'에 대해 정의하고,
세계와 한국 기독교의 순교 역사를 소개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순교가 함께 엮어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와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계교회사 속의 순교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 순교자,
교회를 새롭게 한 중세 종교개혁기 순교자,
선교의 문을 연 근대의 순교자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맞선
현대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15세기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순교

조선 후기 천주교 순교

개신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천주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에서
신유박해(1801), 기해박해(1839), 병오박해(1846) 등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 피의 대가로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개신교 순교

19세기 말 조선에 전해진 개신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순교자들은 신사 참배의 강요에 맞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모진 고문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까지 "주님 외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외친 그들의 신앙고백을 들어봅니다.

6.25전쟁기 개신교 순교

일제강점기에 이어, 6.25전쟁기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족분단과 6.25전쟁의 비극 속에서
순교자들은 이념의 대립을 넘어선 사랑과 화해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와중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은 목회자와 교인들의 순교 정신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기철 목사> 김학수

영상전시실

한국 개신교 순교 정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 전시 '순교자의 글'

순교자들이 남긴 설교문,
찬양, 옥중 편지, 한시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전시실 – 순교자라 불리다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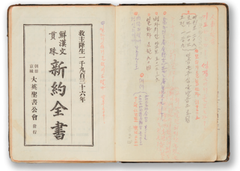
2전시실은 '만남'을 주제로, 순교자들의 유품과 순교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자기 자신을 위해 붙들지 않은, 그리스도를 따라간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죽는 이유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돌아보고,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믿음의 흔적을 새깁니다.

미디어아트 '호명 呼名, 이름을 부르다'

'불령선인', '악질반동', '광신도', 거짓되고 찢겨진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라 부르십니다.

순교자의 성경

순교자들의 흔적이 남겨진 성경을
전시합니다.



<노현덕의 성경>
「선한문 관주 신약전서」 1936, 대영성서공회

애니메이션 '어느 순교자의 고백'

감옥에 갇혀 순교의 날을 기다리는
어느 순교자의 마음을 담은 고백입니다.

디지털 존영

순교자들의 모습과 함께 출생과 소속교회,
활동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마르튀스 채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르튀스 채플은 '성찰'이라는 주제로, 1, 2전시실에서 배우고 만난 순교와 순교자의
삶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묵상하고
사색하며 성찰하는 공간입니다.

순교에 대하여

(짧은 묵상 글)

순교자란 단순히 기독교인으로서 죽임을 당한 희생자를 넘어서서
그의 삶과 신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의 모범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가시적인 기독교 박해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의와 불법과 폭력과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기억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 순교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한 순교자들이 생명을 드려 지키려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좇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 찬송가 586장 3절 –